

■ 전남도, 여주시 정책비전 투어

“여수,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남해안 중심도시 육성”

글로벌 관광도시·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등
전남연구원, 미래발전 12대 핵심비전 제시
김 지사 “탄소중립산업 성공모델 전환 지원”

여수시가 가진 산업·관광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 전환, SOC 확충을 통해 남해안 중심 도시이자 해양관광의 세계적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는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정기명 여주시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문갑태 여주시의회 부의장, 청년,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

정기명 여주시장은 “여수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도시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정책,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정책비전 투어가 미래 해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수는 역사, 자연,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어떤 도시보다도 경쟁력을 갖췄다”며 “여수시가 가장 성공적인 탄소중립 산업의 모델이자 해양관광의 세계적 명소인 ‘글로벌 그린 오션 선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연구원은 ‘신해양·문화관광 수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항 여수’를 주제로 여수 미래 발전 12대 비전을 발표했다.

12대 비전은 △석유화학 대전환 프로젝트 △여수·광양만권 단계적 RE100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여수 중심 ‘광양만권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여수·광양항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 △글로벌 관광도시 확장 △호국역사문화 벨트 중심지 조성 △여수엑스포권역 MICE산업·K-컬처 거점 라뉴얼 △첨단 수산융합 클러스터 조성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여수공항, 남해안



전남도는 13일 오후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정기명 여주시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문갑태 여주시의회 부의장, 청년,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

남중권 대표 공항 육성 △남중권 교통 허브 위상 확보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이어진 정책현안 토론에서는 김 지사와 전남도 실·국장, 여수시민 간 집의응답이 진행됐다.

김만재 항일암 중무실장은 “항일암로는 국가명승지 진임도로로 매년 100만명의 방문객이 찾지만 도로 노후

화로 방문객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로 차원의 도로 보수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항일암은 전남을 대표하는 해돋이·일출 명소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맞아 관광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람회 개막 전 신속한 도로 보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상엽 여주시 재가장애인총연합회장은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당월 급여 미소전 시 이월이 가능하지만 전남도의 추가 지원사업은 이월이 불가능해 무리한 급여 사용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운영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지속 건의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요양보호사 쉼터 확충 △영리공원 주차장 확충 △여수 공동구 소방시설 보수보강 공사 도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정부 구상 실현 초점

김태년 위원장 등 국회의원 33명 참여…입법·예산 뒷받침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며 자치기반 구축을 앞장서 이끌 더불어 민주당 특별위원회가 13일 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특위)’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의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5선의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는 등 현역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한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으로는 문금주, 민형배, 안도걸, 전진숙, 조계원, 조인철 등 6명이 합류했다.

원의 당협위원장 및 지방정부 단체장·의원, 학계·연구자, 지역혁신가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과 264명의 정책자문위원들도 함께 뒀다.

김태년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고 밝히며 “국민주권정부답게, 행정수도 완성과 5급 3직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아젠다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의 존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국가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이라며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곳곳에 분산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총력을 다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위는 균형 발전의 비전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의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원기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김태년 균형특위 위원장, 김경수 대통령직속지방사대위원회의 위원장.

겨갈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각 지역과 함께 균형에서 성장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균형특위는 이재명 정부가 실현하려는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주동

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균형특위는 출범식을 계기로 당·정·대 균형성장 정책 공조 체계를 선제적으로 조율하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랍사르 등록 추진

시, 17일 주민설명회 거쳐 12월 환경부에 제출 예정

광주시가 국가습지보호지역인 황룡강 장록습지의 랍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장록습지의 랍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 내 이야기꽃도서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랍사르습지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록습지는 황룡강 하부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2020년 지정)으로, 멸종위기종인 I 급 수달과 II 급 삿·새호리가·원목물떼새를 포함해 총 823종의 야생생물

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 환경부에 장록습지의 랍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9월 회신을 통해 “랍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2월께 환경부에 랍사르 정보양식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랍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진숙, 국회도서관장에 광주분원 필요성 주장

“전국 유일하게 호남권만 국립도서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원내대표)은 전남 국회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만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13일 밝혔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수도권(서울)에 본관이 있고, 영남권에는 부산분관이 운영중이며, 중부권에는 세종분관이 추진되고 있으나 호남권에는 아직 국회도서관 분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주요 국립도서관들도 모두 수도권·영남권·중부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에는 단 한 곳의 국립도서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식정보 기반시설의 지역 편차가 심화하면서 호남권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입법·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 역할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한 결과, ‘호남권에 국회도서관 분관이 필요하며, 광주가 가장 적합한 입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도서관 분관 관련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향후 이 용역 결과를 반영해 분관의 위치와 규모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호남은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지를 통해 정보의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로서 관련 국회도서관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10월 직무수행 평가 ‘1위’

지난해 11월부터 광역단체장 부문 선두 유지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올랐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는 52.4%의 지지율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직무평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임기 시작과 함께 직무수행 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74.1%를 최고로, 단 한 차례도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 등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절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9%는 52.3%를 기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9%는 51.5%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각 각각 차지했다. 4위 김두경 울산시장 50.5%, 5위 김진태 강원도지사 48.9%, 6위 김태흠 충남도지사 46.6%, 7위 박완수 경남도지사 46.0%, 8위 최민호

세종시장 45.2%, 9위 이상우 대전시장 45.0%, 10위 김동연 경기도지사 44.5%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시·도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전시가 0.4%p 하락한 68.0%로 지난달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전남도가 3.5%p 상승한 67.3%로 다섯 계단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66.6%로 3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9월 28~30일, 10월 30일~11월 1일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시·도별 9~10월 각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 시계열 자료분석 기법을 적용했으며, 통계보정은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3.6%이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의료·요양·돌봄 ‘한번에’ 통합돌봄 협력망 시동

전남도, 8개 사회복지 기능기관과 업무협약

전남도는 13일 도청 사재필실에서 전남 사회복지협의회, 전남 8개 사회복지 기능기관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

협약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의료·요양·주거·자활 등 분야 간 유기적 연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행과 박민서 전남사회복지협의회장, 각 기능기관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전남지역 사회복지 기능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을 한 것은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전남형 통합돌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인돌봄 △장애인복지 △자활 지원 △여성·가족복지 △지역복지 네트워킹 등 각자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영역을 계속 넓힐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의 현장역량을 제도권 체계에 결합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복지 전달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윤진호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행정과 현장이 함께 만드는 전남형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떠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의료·요양·복지기관이 한뜻으로 나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